

“일자리 창출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1 ‘여수 밤바다’와 ‘쿠르즈’를 연계하면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쿠르즈를 운항하려면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조건은 숙박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수와 남해 등 국내만 운항할텐데 굳이 숙박시설이 필요하나. 또 선박톤수도 2000t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00t 이상으로 완화하면 쿠르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철강 연관기업단지다. 산단 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계열사 또는 관계사에 임대하면 생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 산단 활성화를 위해 개발 목적에 맞는 계열사 또는 기술협력기업에 임대를 허용해달라.

전남도, 중앙부처에 산단 유희부지 임대 완화 등 9건 건의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 등 일선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줄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건의 규제는 총 9건으로 기업투자 관련 5건, 관광 활성화 3건, 공공 일자리 1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산단단지내 유희부지 발생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 완화 ▲중소기업 창업 공장부지 변경 승인조건 완화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허가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개선 ▲사회적기업 진

입 요건 완화 등이다. 섬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 노력항 주변에 숙박시설·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후속 조치로 해당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 설명은 물론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동시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정책담당관은 “이

■개선 건의 규제

- 산단 유희부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 완화
- 중기 창업 공장부지 변경 승인조건 완화
-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허가
-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개선
-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 완화
- 장흥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번에 건의한 9건의 개선 규제는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선 기대감이 크다”며 “긍정적 결과물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 서거차도 에너지 자립섬 ‘첫 삽’

신재생 에너지 75% 공급

전남도는 21일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에 직류배전망 실증시스템이 적용된 ‘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했다. 그동안 서거차도는 다중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공급했다.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재생 에너지로 섬 전체 전기 소비량의 75%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한전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118억원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직류배전용 태양광 100kW, 풍력 100kW, 배터리 1MWh, 직류배전 선로 4km를 구축해 직류 전력 설비와 연계한 독립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립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란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기존 디젤발전소를 대체해 에너지 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섬 전체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해 섬 주민 생활 개선은 물론 안정된 전기 공급이 이뤄지며, 특히 디젤발전으로 야기된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진도, 해남, 신안 등 14개 섬에서 사업을 마치고 여수, 진도 17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재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아직 도 전남 60개 섬은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한전 또는 정부 공모사업 유치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50곳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리용호 북 외무상, 트럼프 비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 있는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 19일 고려항공편으로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하루밤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리 외무상은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을 완전파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조연설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숙소인 유엔본부 앞 호텔에서 도착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리 외무상은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 짖”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핵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리 외무상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對北)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JFK공항에 입국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늘 유엔총회 연설...‘평화’ ‘압박’ 메시지

트럼프 강경 발언에도 기존 입장 변화 없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동부시간)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번 연설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기조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개발, 난민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북핵문제를 놓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된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안

보장이사회의 결의 2375호를 도출해낸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전쟁의 비극과 참화를 겪었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의 ‘포괄적·근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초강경 언급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연설내용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

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당초 구상한 메시지의 톤과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평화’와 ‘압박’이라는 키워드를 균형있게 강조하는 기존 스탠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최대한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1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대한도의 압박과 제재’라는 공명의 기조가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끝까지 연설문을 보고 필요에 따라 손질할 수는 있지만 큰 틀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 늘리기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다만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공공비축미 35만t을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농가에서 갖 수확한 벼인 ‘산물 벼’ 매입량은 지난해(8만2000t)보다 8000t 많은 9만t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 쌀 26만t까지 총 35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프터·APTERR)’ 용도 쌀로 보관될 예정이다. 에프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간 쌀 비축물량을 미리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 기구다. 농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 것이다. /연합뉴스

정부, 북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 지원기로

시기는 남북상황 고려해 결정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적절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근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

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의발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정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